

시·론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하여



석혜승 포천시 경승실장 보문정사 주지

억만상(億萬象)은 연기(緣起)의 관계. "이것이 있으므로 저 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 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 것이 없고, 이것이 죽으므로 저 것이 죽는다."

이는 두 막대기가 서로 버티고 있다가 이쪽이 넘어지면 저쪽이 넘어지는 것과 같다.

사람 인(人)자가 그래서 사람 인 자이다.

이쪽을 해치면 저쪽은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는다.

남을 해치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체 만물은 서로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상도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평범하고도 깊은 진리는 부처님께서 크게 외치는 연기의 법칙이니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주의 근본 진리를 알면 남을 해치려 해도 해칠 수가 없다.

이 진리를 모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해치려 날뛰는 무리들이여, 참으로 내가 살고 싶거든 남을 도와라.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것 밖에는 없다.

아무리 상반된 처지에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鬭爭)과 반목(反目)을 버리고 서로 도와야 한다. 물과 불은 상극된

물체이지만 물과 불을 잘 조화롭게 사용하는데서 우리의 생활이 윤락해진다. 이제는 서로 손을 잡을 때다.

상철 큰스님의 법어(法語)중에 "화창한 봄날 푸른 잔디에 황금빛 꽃사슴 낮잠을 편히 자네"라는 가르침이 있다.

우리는 본래 평화의 꽃이 만발한 낙원에서 살고 있다. 시비 선악의 양쪽을 버리고 융합자재(融合自在)한 이 중도(中道) 실상을 바로 보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휴전과 절대적 평화가 있는 우리의 고향이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일제히 입을 열어 중도를 노래하며 부처님 맞이하여 찬양하는 거룩한 장관속에 손에 손을 잡고 다같이 춤추다.

불기254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자·슈·기·고



김진동 포천예총회장

그대들이 배고프지 않고 고달프지 않게 살아감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저 후진국의 참상과 비교 해보라.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고 윗대에서 잘못 인식 된걸 우리 대에서 고쳐 살았노라는 역사를 쓰게 하려면 지금이 새로운 다짐을 할 때이다.

어른이 저지른 잘못을 사대질 하기보다는 저런 것은 나쁘니 우리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본보기로 삼을 때 이 땅엔 진정한

윤리가 생성 될 것이요 잘못된 영웅심이 발동 된다면 그것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꼬리를 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니 새로운 이정표를 제정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그대들에게 도덕심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란 것을 뼈저리게 반성해 보지만 어찌하랴 이미 흘러간 물인 것을 변명을 늘어놓자면 우리 세대는 운명적으로 위

현명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난 조상이었더라도 그대들은 그 다음 대에 위대한 상속자로 남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 땅의 자손으로 태어났음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운명이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 욕심을 부려서 신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나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무모한 일 것이다.

그대들이 이 땅에서 시들고 있는 정의나 도덕만 살린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고난 위에 새길 수 있는 더 없는 값진 족적

일 테니 지금까지의 잘못 된 역사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의 내일에 걸맞는 청사진을 마련해 봄이 어찌가랴 권해 본다.

그대들에게 도덕심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란 것을 뼈저리게 반성해 보지만 어찌하랴 이미 흘러간 물인 것을 변명을 늘어놓자면 우리 세대는 운명적으로 위

난 조상이었더라도 그대들은 그 다음 대에 위대한 상속자로 남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 땅의 자손으로 태어났음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운명이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 욕심을 부려서 신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나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무모한 일 것이다.

그대들이 이 땅에서 시들고 있는 정의나 도덕만 살린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고난 위에 새길 수 있는 더 없는 값진 족적

나 많은 난관의 일생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체의 확정과 해방의 소용돌이, 6. 25의 참화에다 경제 건설까지 모두를 책임 질 수밖에 없다 보니 우선 배고픔에서의 해방이 제일 급선무여서 후손들의 바르게 자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이제와 생각하니 속을 팔아서 길을 다듬은 어리석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연은 어느 역사 교과서에도 언급되지 않았기에 그대들에게 사관을 직시하여 윗대에

서 한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시위 문화의 제물이 되어 기성세대

대의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잘못 된 그림에 개질을 하여 다듬으려 하지 말고 잘 결속하여 새 도화지에 새롭고 희망찬 새 그림을 그리라는 게 보다 나은 내일이 약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너무도 고생스럽고 고통으로 점철 된 어린 시절이었기에 후손들에겐 그걸 상속하지 않겠다는 단말마적인 의지가 오히려 후예들을 낙양하고 안이하게 세상을 우습게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니 어찌하면 가장 어리석고 아둔했던 게 우리 세대 인 것 같아 부끄럽고 죄스러움을 면할 길이 없게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그렇게 우리 마음들이 철통같이 무장되면 우리 굳이 외래 문물의 침입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태평성대가 약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잘못 된 세월이라고만 한탄하고 있기에 우리 너무 멀리 있으니 고삐를 바짝 조여 매무새를 고쳐 달라는 너무도 비감한 외침을 대를 이을 그대들에게 남기려 싱그러운 5월의 창공에 띄운다.

주민발언대

\* 주민의 의견이나 포천신문 홈페이지(www.ipcs21.com), 포천시청 홈페이지 네트즌의 의견을 가감없이 게재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포천에 있는 현대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5달째 임금이 채불되어 있습니다.

사장이란 사람은 학원에 보지도 않고 있었지요...

맨날 정선에 가서 노름이나 하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번째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더 그랬었다니 3번째입니다...

제가 여기 입사한지는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첨에 몇달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았습디다...

그러다 어느날 부터 학원에 잘 오지도 않고 월급날이 지나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나타날 않더군요...

한달에 한달도 불까 말까 었습니다... 임금이 밀리기 3~4개월 정도 됐을 무렵 와서는 순번을 정해서 그동안 밀려던 월급을 가져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달 1월이 되어서 그게 끝났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봉급은 다시 또 밀리게 되었어...

그러더니 저번 달 봉급 정도에

학원을 다른사람에게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구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밀려던 봉급의 70%를 주기로 했네요...

그래서 그 70%로받고 그동안의 월급에 대해서는 말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하는 사람들이 차일피일 그걸 미루면서 6월 10일 이야기 하더군요 근데 그것도 호지부지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안하더군요.

그러면서 그거는 자기와의 문제가 아니고 전사장과의 문제라고 말하더군요...

아직 사업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사람들은 벌써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주인과 사장과 계약서도 다쓴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데리고온 직원들을 간부를 시키고 일하는 걸 보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감사님들을 포함하여 15명정도가 5월 14일부로 다 퇴사 했습니다.

감사도 없는데 저희 없이 지금도 학원운영을 하고 있는걸 보니 이상합니다...

감사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거든... 지금까지 이렇게 돈도 못 받으

면서 일해왔는데 결국 듣는 소리가 사장도 그렇고 돈이 없네요...

정말 너무 억울 하고 화가 나네요...

도와주세요!!!!!!!!!!!!!!

김주영

결식아동 돕기 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15일 있었던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최한 결식 아동돕기 사람나눔의장에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장터에는 조합협의회와 조합원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 소울 음장님등 대략 500명정도의 인원이 참석하여 포천시민들의 처음 열린 사랑의 나눔의 장을 사람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금으로 아이들의 희망을 줄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금 섭섭한것은 작은 행사에도 잘 참석하시는 시의원 도의원 얼굴을 비롯한 다수의 장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점이 섭섭하구여 내년엔

는 볼 수 있으리라 기대 합니다.

김진원

공용 무료주차장 안내표시판을...

안녕하세요? 바쁜 일정에 시정을 살피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너무 엉망인 포천의 주차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필마트 골목은 주차장인지 무엇인지 알수가 없고, 답답합니다. 특히나 장기 주차중인 차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곳에는 무료주차장 안내 표시판을 달아두거나, 전봇대에 부착하면 어떨까요?

또한 견인 조치 하겠다는 강력 한 문구를 붙여 주는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견인조치 의뢰 전화 번 호가 몇 번인지요?

한번쯤은 지도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김진진

포천의 버스에는 잔돈이 없습니까?

오늘 제 아버님께서 아주 기분 나쁜 일을 당하셔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친목회원분들과 포천 2동의 갈비집을 가셨었습니다.

명성에 비해 허술한 갈비를 드시고 일행보다 먼저 집으로 오시느라 2동에서 1동으로 나가는 완행버스를 타셨답니다.

한데 버스에 오르고 보니 잔돈이 없고 만원짜리만 있으셨답니다.

가는 길에 가게가 나오자 버스 기사는 잔돈을 바꿔오라고 아버님을 보냈는데 바꿀수가 없으셨답니다. 그때 서울로 가는 시의 버스가 있어 그쪽으로 옮겨 타려더니 부자 되시라며 비아냥 거리더군요.

잔돈 준비 못한 실수야 인정 하지만 잔돈도 없이 다니는게 버스입니까?

잔돈도 준비 못한 놈이 운전사 맞습니까?

아버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버스 확인을 못하셨습니다.

그 운전기가 그런식으로 하다가 똥통 당하리라 생각드네요.

앞으로 포천하면 이 자격없는 운전기사가 먼저 떠오를것 같네요.

글 올릴 마땅한 곳을 못 찾아서 이곳에 올립니다.

발견 하시기를... 이런 운전 기사가 사라지기를...

임성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도전은 노인양양 부담의 문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열명이 벌어서 한노인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다섯명이나 세명정도 가 벌어서 부양해야 한다는 통계인 것이다.

종래전통사회에서 의 농업위주의 경제생활에 익숙하던 노인층은 산업과정 생산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경제활동 주류에서 밀려 나고.

도시에서 생활해온 노인들도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보는 문제는 농촌의 생활에 맞아 노령인들이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해야하는데

있어서 도시생활에 적응하던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 시골 농촌 정착에 가능한 기획과 프로그램이 되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는것이 골자인것이다.

노년인구 증가 차원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무엇이었수 있을까?

이성일

무척 청결해진 시내버스

요즘 버스 타실 때 조금 주의 기울여 보세요.

무척이나 청결해졌죠! 특히 버스 내부 천정은 새차 같아요.

평소 불결하여 개선요청을 하였더니 금세 너무 깨끗하게 되었네요.

그냥 모른 척 마시고 이용자 스스로 의견을 주시어 개선하는 것이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효율적인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없어서 해주길 기다리에는 아직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였으니까요.

이젠 교통법규도 잘 지켜주세요.

포천이나 송우리에서 43번 도로로 진출입시 신호준수 잘할거고요...

개선되지 않으면 촬영해서 고발하죠 뭐..

좌우간 개선된 버스 이용하고 조금은 환하게 여행하시길...

강병욱

Advertisement for '다림방' (Dallim Bang) restauran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holding a chopstick, the text '맛이 깊은 집 송우리점' (Tasty home Songuri branch), phone numbers '542-6429 • 542-7274', and '신속배달' (Fast delivery) with phone numbers '031)542-6429' and '031)542-7274'.